

2019년 9월 2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정치 및 무역협상 불확실성으로 부진 트럼프,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사라져야 된다”

미 증시 하락 요인: 트럼프 발언, 트럼프 탄핵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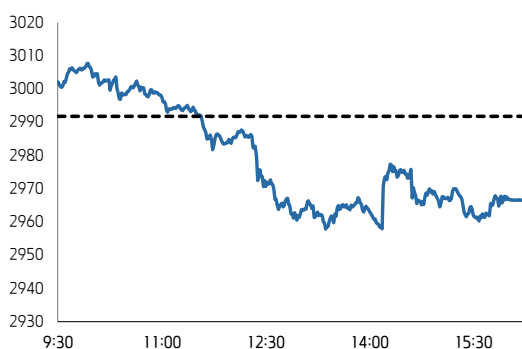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속에 상승 출발. 그러나 트럼프가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비난을 발표하자 하락 전환. 더불어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정치 불확실성을 부각시키며 부담으로 작용. 다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공개 승인 이후 낙폭 축소되기도 하는 등 안정을 찾은 가운데 하락 마감 (다우 -0.53%, 나스닥 -1.46%, S&P500 -0.84%, 러셀 2000 -1.58%)

트럼프가 UN 총회에서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비난을 가함. 특히 WTO 가입 이후 혜택만 받을 뿐 자체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WTO 의 개혁 또한 주장.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를 희망하지만, 나쁜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 시장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으로 10 월 초에 있을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다고 평가.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내용이었던 점을 감안 일부에서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트럼프에 대한 탄핵 논란이 불거진 점도 하락 요인. 트럼프가 지난 7 월 25 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아들인 우크라이나 최대 가스회사의 임원 헨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요구 했다는 의혹이 불거짐. 트럼프는 이에 대해 당선 축하 인사였으며 바이든과 그의 아들처럼 미국인이 우크라이나에서 부패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언급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주장 했으며(민주당 하원 의원중 172 명) 펠로시 하원 의장은 관련 추진 상황을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언급

과거 탄핵 이슈가 발생했던 1972 년 리처드 닉스와 1998 년 빌 클린턴 때도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점을 감안 트럼프에 대한 탄핵 이슈는 주식시장에 부정적. 다만, 민주당 하원 의원 중 공화당 우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아직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 않아 하원 통과도 쉽지 않음.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101.04	+0.45	홍콩恒生	26,281.00	+0.22
KOSDAQ		641.85	-0.49	영국	7,291.43	-0.47
DOW		26,807.77	-0.53	독일	12,307.15	-0.29
NASDAQ		7,993.63	-1.46	프랑스	5,628.33	-0.04
S&P 500		2,966.60	-0.84	스페인	9,118.20	+0.27
상하이종합		2,985.34	+0.28	그리스	868.01	+0.63
일본		22,098.84	+0.09	이탈리아	21,901.01	+0.0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5%

마이크론(-2.20%), 인텔(-2.12%), 텍사스인스트루먼트(-1.53%), 퀄컴(-2.60%), NVIDIA(-1.32%) 등 반도체 관련주는 트럼프가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비난을 가하자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넷플릭스(-4.26%)는 스트리밍 산업에 대한 경쟁 격화 및 신규 고객 증가 둔화에 대한 우려, 높은 콘텐츠 획득 비용에 따른 실적 부진 등이 부각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페이스북(-2.97%)은 독점 금지법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으며 오늘도 정부의 규제가 강화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세를 이어갔다. 아마존(-2.45%) 모건스탠리의 목표주가 하향 조정 이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하락폭을 확대 했다. 코노코필립스(-1.46%), EOG리소스(-1.96%) 등 에너지 업종은 무역분쟁 격화 우려속에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부진했다. JP모건(-1.30%), BOA(-1.96%), 씨티그룹(-2.37%) 등 금융주는 국제금리 하락여파로 약세를 보였다. 한편, 나이키(-0.58%)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시간 외로 5% 넘게 급등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78%	대형 가치주 ETF(IVE)	-0.72%
에너지섹터 ETF(OIH)	-5.11%	중형 가치주 ETF(IWS)	-0.67%
소매업체 ETF(XRT)	-0.83%	소형 가치주 ETF(IWN)	-1.22%
금융섹터 ETF(XLF)	-0.96%	대형 성장주 ETF(VUG)	-1.04%
기술섹터 ETF(XLK)	-0.97%	중형 성장주 ETF(IWP)	-1.1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49%	소형 성장주 ETF(IWO)	-1.82%
인터넷업체 ETF(FDN)	-2.04%	배당주 ETF(DVY)	-0.34%
리츠업체 ETF(XLRE)	-0.13%	신흥국 고배당 ETF(DEM)	-1.26%
주택건설업체 ETF(XHB)	-0.16%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75%
바이오섹터 ETF(IBB)	-2.05%	미국 국채 ETF(IEF)	+0.50%
헬스케어 ETF(XLV)	-0.92%	하이일드 ETF(JNK)	-0.11%
곡물 ETF(DBA)	+0.19%	물가연동채 ETF(TIP)	+0.22%
반도체 ETF(SMH)	-1.48%	Long/short ETF(BTAL)	+1.5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45.38	-1.63%	-2.23%	+7.96%
소재	361.71	-0.96%	-1.14%	+4.98%
산업재	651.05	-0.64%	-2.09%	+5.24%
경기소비재	939.04	-1.19%	-2.40%	+1.44%
필수소비재	622.58	+0.23%	+0.39%	+0.69%
헬스케어	1,050.10	-0.91%	-0.44%	+1.42%
금융	463.36	-0.94%	-1.38%	+6.15%
IT	1,399.08	-1.03%	-1.64%	+2.13%
커뮤니케이션	167.70	-1.34%	-2.21%	+2.56%
유틸리티	327.93	+1.06%	+2.41%	+4.37%
부동산	243.13	-0.11%	-0.24%	+1.0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차익 매물 욕구 확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1% MSCI 신흥 지수 ETF 는 1.06%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2,474 계약 순매도하자 1.70pt 하락한 276.5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4.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 하락 요인은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한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과 트럼프에 대한 탄핵 이슈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UN 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무역관행과 관련 비난을 가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매물을 내놓았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지속적으로 이야기 되어 왔던 내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최근 상승 요인이었던 미-중 무역협상 기대를 약화시킨 점은 차익 매물 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 부담이다.

한편, 트럼프에 대한 탄핵 이슈가 불거진 점도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줬던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한다. 닉슨과 클린턴 대통령 탄핵 이슈 당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우기는 했으나, 탄핵보다는 당시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제자리를 찾아 갔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시장이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아 탄핵보다는 미-중 무역협상, 온건한 통화정책 등에 더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심리지표 둔화

9 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134.2)는 물론 예상치(133.0)을 크게 하회한 125.1 로 발표되었다. 현재 여건 지수(176.0→169.0)는 물론 기대 지수(106.4→95.8) 모두 하향 조정 되었다. 이에 대해 컨퍼런스 보드는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소비자들의 심리에 악영향을 줬다고 발표 했다.

9 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는 전월(1)이나 예상치(0)을 크게 하회한 -9 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봐도 신규수주(2→-14)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고용지수(-6→3)은 반등에 성공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하락 지속

국제유가는 트럼프가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비난을 가하자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한편, UN 총회에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 제재 확대만 요구했을 뿐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었다는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미국 소비심리지표가 크게 둔화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파운드화는 영국 대법원이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 하다며 무효라고 판결하자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134.2)은 물론 예상치(133.0)을 크게 하회한 125.1 로 발표되자 하락 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던 소비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트럼프가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비난을 가하자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트럼프에 대한 탄핵 이슈가 부각된 점도 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해 CMEfedwatch 에서 10 월 금리 인하 확률은 지난 주 20%에서 오늘은 64%로 확대되었다.

금은 정치 및 무역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89% 철근도 0.31%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7.29	-2.30	-3.06	Dollar Index	98.341	-0.26	+0.08
브렌트유	63.10	-2.58	-2.25	EUR/USD	1.1019	+0.24	-0.49
금	1,540.20	+0.57	+1.77	USD/JPY	107.07	-0.45	-0.98
은	18,628	-0.44	+2.69	GBP/USD	1.2491	+0.50	-0.07
알루미늄	1,762.50	-1.26	-1.65	USD/CHF	0.9857	-0.42	-0.75
전기동	5,780.00	+0.03	-0.70	AUD/USD	0.6799	+0.38	-0.98
아연	2,282.00	-2.12	-2.85	USD/CAD	1.3245	-0.14	+0.01
옥수수	374.75	+0.40	+1.83	USD/BRL	4.1643	-0.03	+2.15
밀	481.75	-0.26	-0.52	USD/CNH	7.1071	-0.04	+0.30
대두	894.25	+0.20	+0.06	USD/KRW	1195.70	+0.14	+0.42
커피	99.15	+0.15	-1.20	USD/KRW NDF1M	1194.75	+0.06	+0.70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642	-8.46	-15.92	스페인	0.115	-3.00	-16.70
한국	1.447	-2.30	-4.60	포르투갈	0.139	-3.10	-16.70
일본	-0.234	-2.70	-8.20	그리스	1.316	+0.20	-17.10
독일	-0.600	-1.90	-12.60	이탈리아	0.830	+0.10	-8.90